‘정동영 딜레마’ 속타는 정세균

■ 전주 덕진 공천 주느냐 마느냐

공천땐 386 반발·정대표 세력 균열
배제땐 무소속 출마 당내 갈등 우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4·29 재보선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 전 장관 출마 방침 확정 이후 굳은 표정으로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정세균 대표〈왼쪽〉와 지난 13일(한국시간) 워싱턴 특파원과 간담회를 벌이고 있는 정 전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4·29 재보궐선거 전주 덕진 지역구 출마 강행을 선언함에 따라 정세균 대표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지만 당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세균 대표의 의중이 공천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세균 대표는 주말 기간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재보선 구상에 몰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대표는 노영민 대변인에게 15일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화두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복잡한 심사를 반영했다.

노 대변인은 “MB 악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하는데 재보선에서 지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이길 수 없는 만큼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정 대표의 각오를 설명했다. 결국 정 대표는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전략공천과 공천 배제 카드를 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정면돌파하되 그 에너지는 재보선의 승리로 모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다음주부터 당내 중진 및 원로그룹을 포함해 다양한 인사를 접촉,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현 상황에서 정 대표는 세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의 ‘개혁공천’이라는 명분 아래 정 전 장관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다.

개혁 공천을 바탕으로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한다면 정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여기에 과감한 결단을 통한 리더십 제시라는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도 보다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정 전 장관이 전주 덕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하고, 인천 부평 을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정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사실상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주 덕진에서 정 전 장관의 정치적 파워를 능가할만한 후보를 내세우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개혁을 명분으로 다른 후보를 옹립한다 해도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폭발, 재보선 정국에서 적전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결국 정 전 장관에 공천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정 대표가 공천심사위에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정 전 장관의 공천을 실질적으로 용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일부 386 그룹의 반발 등 정 대표 세력의 균열과 정치적 결단력 부족이라는 정 대표의 유약한 이미지를 더욱 굳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동영 전 장관은 15일 복귀 시점에 대해 “25일까지 미국 현지 일정이 있지만 너무 늦지 않게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의 수도권 출마설에 대해 “작년 총선 때 당의 명령에 따라 서울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는데, 우연히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며 "지역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역경 끝에 본래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14일 정세균 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당과 정 대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0여차례 시도 끝에 정 대표와 통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로

한나라, 2010 지방선거부터 검토

한나라당이 오는 2010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제로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책무성도 강화돼야 할 때인 만큼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는 광역단체장과 해당 시도 교육감이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입당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유권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유권자가 교육감의 교육이념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선거를 러닝메이트로 치르거나 정당공천을 할 경우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의원들 ‘정동영 셈법’ 분주

비서실장 지낸 우윤근 의원 등 거취 주목

與 박희태 출마 유력 … 정치적 의미 확대
野 정동영 출마 신-구주류 다툼 예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29 재보선 전주 덕진 출마 강행 선언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정 전 장관의 현실 정치 복귀에 따른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정국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정세균 대표 우호세력으로는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과 원내수석 부대표인 서갑원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은 정세균 대표 체제에 중도적 입장이나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 전 장관이 전주 덕진 재보선에서 승리, 원내에 진출하면 그동안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 목소리를 낮췄던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정동영 전 장관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 등을 맡은 바 있는 우윤근 의원과 구 열린우리당 선도 탈당파인 주승용 의원 등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중진 의원들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구 민주당 탈당파로 8인 모임 소속인 김효석, 이낙연 의원 등의 행보도 바빠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전략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당 기득권 세력의 견제에 대해 그동안 상당한 거부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다 당내에서의 평판도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4·29 재보선 이후 그의 행보는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이용섭, 조영택, 김재균, 김영록 의원 등 초선 그룹들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지역 초선의원들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당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당내 역학구도 변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복잡해진 재보선 방정식

4·29 재·보선에 대한 정치함수가 복잡해지고 있다.

향후 정국 향배와 차기 대선구도까지도 흔들 만한 각종 정치적 변수들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번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축소해왔지만 박희태 대표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재·보선에 대해 방조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할 상황이 됐다. 대표가 출마하는 선거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재·보선은 처음엔 기회였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5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곳은 전주 덕진 1곳뿐이고 나머지 지역구는 한나라당(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과 무소속(경북 경주, 전주 완산갑)이 당선된 곳이어서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선거구도가 변화됐다. 그의 공천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는 당밖으로까지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자신·이웃에게 희망의 주문을”

진선기부의장 책 펴내

○…“내 자신에게 희망의 주문을 걸고, 좀 더 책임있게 살기 위해서 지난 46년간의 삶의 이력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진선기(46·사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자신의 삶과 정치철학을 담은 에세이집 ‘꿈꾸는 자 해낼 수 있다’를 펴냈다.

이 책은 자신의 출생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46년 인생을 솔직 담백하게 담았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문화중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시의회 내일 임시회

○…광주시의회(의장 강박원)는 17~31일 15일간 제17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예년보다 3개월 가량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이를 심의 처리한다.

또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안과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도 심의한다.

광주서 전국 기초의장협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협력 방안과 강원도 가뭄피해 대책 정부 건의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의장들은 ‘광주 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오향섭 서구의회 의장)를 갖고 “하계U대회 광주 유치 적극 지원”을 결의했다.

이들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과 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광주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 때 충분한 사전예고 등 주민 불만·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